



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은 세
대, 계층, 집단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소통하고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에 더
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의 날'이 여러분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친숙한 공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
아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1
2023. 04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1

2023. 04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1

2023. 04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도서관에 가면 서가에 배가된 책과 그 책을 관리하는 사서가 이용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오늘도 도서관은 책과 사서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도서관> 4월호에서 특색 있는 행사가 가득한 '도서관의 날'을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3호 통권 311호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호림, 이은경, 김승정,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문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04 오늘의 칼럼

'도서관의 날'에
도서관은 진짜가 되는 거야

06 도서관의 날

매년 '도서관의 날'을
즐거워

08 오늘 나의 도서관은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특별한 도서관 문화축제
'도서관의 날' 법정기념일,
첫 회 행사 안내

12 일상을 펼치다

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도서관 정보력 테스트

도서관을 만나다



14 책 읽는 마음

마음의 고요를 찾아,
책 여행을 떠나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영어를 다양하게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목포 영어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싱가포르 최대 쇼핑몰 속
책과 함께 머무는 공간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누구에게나 공평한 도서관
'배리어프리 도서관'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MZ 세대 과학덕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2030 과학 분야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36 오늘의 만남

글과 그림으로
채워가는 단단한 일상
삼화가 임진아

40 K-인문학

'유미의 세포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44 고전 드라마

어쩌다 보니 계몽 100년 차
루신 《아큐정전(阿Q正傳)》

48 오감독서

모두가 눈이 먼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다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세 번째 필사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59 오늘의 사진관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 4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도서관의 날’에 도서관은 진짜가 되는 거야

글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8년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다. 아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기념할 날이 참 많았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그 밖의 날은 간혹 잊어버리거나 설렁 기억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잦았다. 바쁜 사회생활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절로 기억되고 꼭 지키는 날이 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다. 평소에 잘하지, 그날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날만이라도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고,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서로 깔깔거리며 함께 커피를 마실 때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날마저 없다면 아내와 처음 만난 순간에 든 감정을 다시 느낄 기회가 사라질 테니 말이다. 올해 기념할 날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도서관의 날’이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의 가치

2023년 4월 12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는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이다. 법으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도서관 관련 행사와 유공자 포상, 도서관 홍보 등은 도서관의 날이 아니더라도 개별 도서관에서 단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법으로 도서관의 날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 도서관은 이용자만을 위해 열려있는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오직 이용자에게 최고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그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을 평가하는 지표도 이용자를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성과뿐이다. 도서관이 바라는 건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 한마디와 사서를 향한 이용자의 환한 표정만으로 충분하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하다. 한 해 동안 오직 이용자만을 생각하고 달려온 도서관의 대견함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사서라서 얻는 즐거움과 뿌듯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변함없이 이용자를 위해 헌신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다. 4월 12일부터 1주일간 각종 도서관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의 모든 행사는 평소 도서관을 사랑해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행사마저도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도서관 축제의 시간이다. 이런 축제를 기회로 현재 도서관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도서관의 날을 기념할 것이다. 도서관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중요한 이유다.

도서관주간과 사서의 자부심

도서관 하면 대다수가 서가에 비치된 책을 떠올린다. 사서를 연상해도 그리 다르지 않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사서와 librarian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서가를 배경으로 환한 미소를 띤 사서의 사진이 대부분이다. 즉 이용자는 책과 사서, 도서관을 함께 연상한다. 도서관의 날에 사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빛이 날까? 이용자와 함께 할 때이다. 사서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책을 구매할 때도 그렇다. 이용자가 ‘읽고 싶은 책’을 우선으로 구매한다. 어쩌면 이용자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사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목표가 아닐까.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 중에는 가치 있는 책도 물론 많지만, 한순간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가벼운 책도 제법 많다.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작가나 작품은 아니지만 숨은 보석 같은 작가와 책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평소에도 사서는 ‘읽히고 싶은 책’을 서가에 비치한다. 도서관의 주간만큼은 이 읽히고 싶은 책과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를 적극 유인하자.

한편 사서들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성실하게 역할에 임하는 데 익숙하다. 예를 들면 사서의 주요 업무 중 책을 분류해 서가에 비치하는 편목작업이 있다. 그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이용자들이 쉽게 책을 찾고,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서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임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의 날만큼은 겸손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만의 서비스 성공사례를 ‘대놓고’ 뽐냈으면 한다. 성공 노하우를 다른 도서관과 사서에 게 전파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서의 역량을 자랑했으면 한다. 평소에 알고 싶었던 책과 도서관 프로그램처럼 숨어있는 문화 보석을 이용자에게 잔뜩 안겨주자.

도서관의 날과 미래 서비스

도서관은 이용자의 학력, 지위, 나이, 재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응한다. 또한 평균적인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지식 소외계층을 위해 도서관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삶은 인간다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만으로 현대 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일반인도 벅차다. 챗GPT와의 대화나 키오스크의 터치 화면, 휴대폰의 KTX 앱 등이 편리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언론 기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시민의 계몽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감당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과거 계몽시대에 비해 그 역할이 조금도 줄지 않고 더욱 중요해졌다. 거짓 뉴스와 정보를 걸러내는 디지털 거름망, 최고·최적의 정보만을 선별하는 디지털 큐레이터 등 문화적 안전판의 역할은 미래 도서관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명이다. 모든 시민이 도서관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마저리 윌리엄스의 《사랑받는 날에는 진짜가 되는 거야》다. 2023년 4월 12일이 도서관과 사서가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날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과 사서는 진짜가 되는 것이니까. 📖

매년 ‘도서관의 날’을 즐거요



4월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나요? 식목일, 4.19혁명, 과학의 날, 장애인의 날...
여러 법정기념일 가운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서관의 날’이죠. 이제 4월 하면 가장 먼저 도서관이 떠오르길 바라며,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도서관의 날

2021년 12월 7일,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서관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럼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법」 중 ‘도서관의 날’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일을 도서관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②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도서관 내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매년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펼쳐지는데요.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계된 홍보를 진행합니다.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에서,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한 뼘 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 축제의 매력 아닐까요?

책으로 인연을 맺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지친 일상을 벗어나 공연을 즐기며 위로받는 이웃 주민들, 도서관 문화와 한층 가까워지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가족들. 도서관 축제의 현장을 상상하면 할수록 색다른 즐거움이 머릿속에 가득 그려집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주간

‘도서관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에 설정한 주간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전 국민이 도서관에 한 번 더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1주일을 도서관주간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국 도서관주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도서관주간을 지정한 1964년은 미국의 전국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이 실시된 지 7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특히 미국은 2004년 ‘국립 도서관 노동자의 날’을 지정해 지금까지 도서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도서관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은 ‘책, 사서, 이용자’ 이 3요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도서관의 날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매년 다가올 도서관의 날이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날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특별한 도서관 문화축제

‘도서관의 날’ 법정기념일,
첫 회 행사 안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올해 4월 12일은 첫 ‘도서관의 날’ 법정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도서관의 날 당일 선포식과 도서관캠프 등을 시작으로, 도서관주간에는 전국 도서관에서 전시 및 공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포럼, 해커톤 대회, 북 토크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이 펼쳐진다. 따스한 봄날, 도서관 문화와 함께 활기찬 한 주를 열어보자.

4월
12일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포스터

도서관의 날로 하나 되는 시간, 축제의 서막을 열다

제1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가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도서관 초청 인사 30명과 도서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환영사와 선포식, 시상식 그리고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구성된다. 선포식은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 및 전략 등 국민과 함께하는 내용을 담아 도서관 선언문을 사서와 일반 시민이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면 줌(ZOOM)에 접속한 50여 명이 슬로건 타월을 활용해 세레모니하는 모습을 현장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 송출하고, 카운트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장애·비장애 연주자들의 멋진 클래식 하모니로 장식한다.



오프라인 체험의 꽃, 도서관캠프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도서관캠프는 전국 도서관 및 관련 협회·단체들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부스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도서관캠프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운영된다. 이번 도서관캠프는 전국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캠프와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 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전시·공연 캠프, 도서관 기념식 행사 LED 실험중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인생네컷 이벤트와 북오디오를 위한 녹음캠프, 도서관의 날 기념품 증정 코너 등 전 국민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진다.

도서관캠프 프로그램

기념식 행사 및 도서관 홍보영상 멀티미디어 월!

행사장에서 홍보영상 및 포토존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LED Wall을 만나보세요.

녹음 부스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시민참여 책 녹음 공간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내 아이를 위한 목소리를
선물해보세요.

내 인생 네(4)컷, 내 인생 기록 남기기!

개인 SNS 업로드 이벤트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인생네컷을 남겨보세요.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 도서관주간

도서관주간인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도서관프로젝트는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을 주제로 어둠 속 챌린지, 어둠 속 낭독회, 별자리 책갈피 제작, 환경마음일지, 은하계 우주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사진전과 북 토크, 강연과 공연 등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도서관프로젝트 참여 도서관 및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전국 도서관에서는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도서관주간에만 열리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누리보자.

도서관프로젝트 참여 도서관 및 프로그램			
연번	도서관명	내용	프로그램 주제
1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	공연	어둠 속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2	경남대표도서관	공연	도서관의 날 기념 공연, with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3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문학, 음악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문학 콘텐츠 제공 및 공연
4	청주시립도서관	챌린지, 체험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시민참여 챌린지,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체험행사
5	선경도서관	전시 및 체험	도서관에서 만나는 낮과 밤의 하늘 이야기
6	서울도서관	기념식, 강연 등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4·12 도서관의 날 특별행사
7	인천광역시마전도서관	체험, 인문학, 전시	도서관 별빛 축제 ‘별 헤는 밤’
8	춘천시립도서관	음악회	어둠 속에서 듣는 Delight 음악회
9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사진전, 샌드아트	대구서부도서관, 서른 살 청년이 되다 기록사진전, 아낌없이 주는 도서관, 샌드아트로 만나다
10	행복북구문화재단 구수산도서관	영화제, 체험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11	대구 동구 안심도서관	독서회, 체험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12	군산시립금강도서관	공연, 작가, 전시	어둠을 밝히는 도서관, 여보세요, 지구씨! 안녕하세요?
13	부산도서관	연주, 퀴즈이벤트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14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전시 및 독서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어둠에 수놓는 별자리 캔버스
15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북 토크	도서관, 봄, 설레임
16	세종시립도서관	강연, 공연	환경보호 그림책 교육 방법 저자 강연, 환경보호,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17	경북도서관	체험, 전시	도서관에서 보는 우주



제59회 도서관주간 공식 포어 2종

소통과 공감을 이끄는

2023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도서관 한마당은 도서관계 및 관련 단체, 학계, 일반 국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서관 축제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첫째 날은 제1회 도서관의 날 기념 국제포럼, 둘째 날은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마지막 날은 국민이 함께하는 북 토크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연령대가 소통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



한눈에 보는 2023 도서관의 날 행사 주요 프로그램

12 4/12(수) 13 4/13(목) 14 4/14(금) 15 4/15(토) 16 4/16(일) 17 4/17(월) 18 4/18(화)


12 제1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14:00~15:3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환영식 및 축하, 시상식과 선포식, 축하공연	12 도서관캠프 11:00~19:00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도서 전시, 홍보, 공연, 인생네트, 북오디오 등 이색 체험 부스 운영	12 13 14 15 16 17 18 도서관주간 일자별 상이 대한민국 전국 도서관 어둠을 밝혀주는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13 14 15 2023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 일자별 상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도서관계 관련 단체 및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포럼, 해커톤 대회, 북 토크
--	---	---	--

※ 모든 행사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행사 내용은 '도서관의 날' 누리집(www.libraryday.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도서관 정보력 테스트

도서관에서는 원하는 책을 맘껏 빌려 읽고, 학습공간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나는 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나의 도서관 정보력을 점검해보자.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책이음&책바다 서비스(books.nl.go.kr), 도서관법(www.law.go.kr)

도서관을 만나다



마음의 고요를 찾아, 책 여행을 떠나봅시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마음을 치료하는
당신만의 물망초 식당

청예 지음 |
팩토리나인 | 2022

“음식이란 정말로,
이리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구나.”(136쪽)



국외문학

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

모니카 구티에레스 아르테로 지음 |
박세형 옮김 | 문학동네 | 2022

“꿈을 꾸기 위해서 굳이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
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미셸 푸코)”(182쪽)

사서의 추천 글

편식하는 사람들만 받는 식당이 있다?

물망초 식당은 주인공 ‘물망초’의 이름을 딴 간이식당으로, 망초는 100일 동안 7명의 손님을 맞아 그들의 편식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성공하면 엄마 금귀비 여사가 운영하는 일류 식당 <금귀비 정찬>을 물려받을 수 있다. 물망초 식당으로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오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망초는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음식 처방을 내린다.

김치를 못 먹는 유현, 콩치를 보면 화가 난다는 학원 원장 등 다양한 손님들이 음식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내보이며 물망초 식당을 찾아올 때, 이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망초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망초는 계약을 무사히 이행하고 엄마의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음식에 담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청예

<웬즈데이 유스리치 클럽>으로 제9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단편 우수상 수상, <초능력이 생긴다면 아빠부터 없애볼까>로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보문고 스토리크리에이터 4기 선정작 《틀니와 짝수》로 영상화 판권을 계약했다.

사서의 추천 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물 같은 이야기. 런던의 작은 책방 달빛서점. 그림책을 좋아하는 책방주인 리빙스턴 씨와 주변 인물들이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서점주인 리빙스턴 씨, 꿈을 좇아 스페인에서 런던으로 날아온 젊은 고고학자 아그네스, 우주와 사랑에 빠진 꼬마 천재 올리버, 리빙스턴의 연인이자 출판사 사장인 시오반, 서점 진열대에서 사라진 육필원고 사건을 수사 중인 록우드 경감, 서점의 단골손님 등, 달빛서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간다. 서점이 배경인 만큼 이야기 곳곳에 책과 독서에 관한 명언들이 가득하다. 《반지의 제왕》, 《티파니에서 아침을》, 《셜록 홈즈 시리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책들뿐 아니라 고전을 비롯한 많은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갑게 읽을 수 있다. 이야기 속에 인용된 책이나 리빙스턴 씨가 손님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을 찾아 읽어 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저자 소개 모니카 구티에레스 아르테로(Monica Gutierrez Artero)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와 바르셀로나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역사를 전공했다. 어릴 적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 대학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재능을 드러냈다. 6개월 동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어디에도 없는 호텔》을 비롯해, 《케이트의 11월》, 《가장 어두운 겨울》 등 총 여덟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여러 문학 매체에 기고하고 소설 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



인문예술

말의 트렌드:
텐션과 사랑이 넘치는
요즘 말 탐구서

정유라 지음 |
인플루엔셜 | 2022

“호명은 한 언어에 갇힌 개념을 제한하고 규격화한다.
기존의 언어에 고여 있는 오래된 의미들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환기의 언어가 필요한 이유다.”(315쪽)

사서의 추천 글

햇살 맛집, 스물재, 얼굴 천재, 육아퇴근, 랜선 조카... 요즘 말에는 디지털 세상 속 대중의 정서와 감수성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 책은 이 시대 말의 지형도를 제시한다. 전반부에서는 줄임말과 묶임말, 하이브리드 언어 등 신조어를 비롯한 MZ세대의 언어를 보여주며 저변에 담긴 가치관을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좋은 언상(言相)을 가지기 위한 섬세하고 감각적인 어휘력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셜 빅데이터 연구원인 저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신조어와 사회상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 말에 담긴 사회적 합의와 평등성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취향은 더 섬세하고 해상도 높은 언어로 표현하되, 타인의 사소한 기호와 경계는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조연대로 신조어 단어장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분명하게, 타인과의 관계는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어의 세계를 확장해보자.

저자 소개 정유라

소셜 빅데이터 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기업 ㈜바이브컴퍼니에서 재직하며 온라인 세상에서 매일 피고 지는 말들의 풍경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트렌드 노트》(2021, 2020, 2018, 2017)가 있다.



인문예술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오미 배런 지음 |
전병근 옮김 | 어크로스 | 2023

“종이책(그리고 읽기)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텍스트(그리고 오디오와 동영상) 또한 이제는 우리 교실의 일부가 되었다. 적어도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비결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어떤 매체가 어떤 종류의 학습에 어울리는지 식별해내는 것이다.”(406쪽)

사서의 추천 글

종이책과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중에 무엇이 살아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2016년부터 2019년 미국에서 종이책 판매는 다소, 전자책 판매는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오디오북의 판매량은 폭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이는 앞으로의 읽기 매체가 오디오북,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로 옮겨갈 것임을 시사한다. 저자는 책의 어떤 한 매체가 다른 매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종이책은 사색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독서에 적합한 반면, 디지털 매체는 온라인에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별 읽기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읽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도출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교사, 강사 등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나오미 배런(Naomi S. Baron)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디지털 기술이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습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구겐하임 펠로, 폴브라이트 펠로 등에 선정된 바 있으며, 미국기호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의 언어학 명예교수이다.



“우리는 모두 기술 노동자다”라는 말은 프로그래머, 청소부, 카페 종업원, 엔지니어를 막론하고 기술 관련 시위의 단골 구호가 되었다. 이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제품, 인프라, 작업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다방면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술 부문이 깨달아야 한다는 요구다.”(104~105쪽)

사서의 추천 글

‘챗GPT(Chat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1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을 단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폭넓게 탐구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추출 산업’으로 규정한다.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을 창조하려면 지구의 광물 자원, 인간의 값싼 노동력, 대규모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취급받으며 일을 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므로 개인의 초상권이 무시되고, 많은 곳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계학습 시스템은 운전면허증 얼굴 사진에서 범죄 성향을 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저자 소개 케이트 크로퍼드(Kate Crawford)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선임 수석 연구원,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사·정 의학과 초빙 석좌교수, 멜버른대학교 미에구나 초빙 석좌교수. 뉴욕대학교 AI 나우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으며 기계학습재단 국제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를 연구하는 선도적인 학자로서 지난 20년간 역사, 정치,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맥락에서 대규모 데이터 시스템, 기계학습 및 AI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자연은 무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힘의 근원이다. 자연은 인간의 경제에 단순히 맞춰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을 아우르는 경제인 것이다.”(37쪽)

사서의 추천 글

인간 사회와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역사학자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인간을 시간을 통해 이해하려는 환경사를 강조하였다.

환경사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인간을 시간의 변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학문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사의 주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환경적 요소가 인류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인류가 환경에 일으킨 변화와 그 환경 변화가 다시 인간 역사에 미친 영향,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태도이다. 사회과학, 인문학, 생태학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간학문적 특징을 가진 환경사는 역사학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환경 쟁점에 관심을 갖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한다.

이 책은 환경사의 개념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환경사, 환경사의 쟁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환경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사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도널드 휴즈(Hughes, J. Donald)

미국 환경사학회의 창립 멤버이자 세계를 대표하는 고대 환경사학자. 1960년 보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덴버 대학에서 40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이질적인 문화의 환경사를 탐구한 내용이 담긴 책을 다작했고 특히, 고대 지중해 환경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환경사 발전을 이끌었다. 주요 저서로는 《Ecology in Ancient Civilizations》, 《Pan's Travail: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Greeks and Romans》, 《The Mediterranean: An Environmental History》 등이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케이스》라는 소설의 원제에 있는 ‘케이스(case)’라는 단어는 ‘범죄사건’이라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증례’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스틸러나 공포물의 관점으로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인격 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 ‘인격의 해리’라는 정신병적 증상을 겪는 환자의 경과 기록이기도 합니다.”(18쪽)

사서의 추천 글

한 번쯤 읽어봤거나 적어도 제목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를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의사인 작가는 28편의 고전을 경험적 시선 ‘의학의 눈’으로 새롭게 접근한다. 1부 ‘19세기의 그림자’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빨간 구두》, 《프랑켄슈타인》, 《어서 가의 몰락》 등 19세기 명작소설을 시대적 맥락과 의학적 배경을 통해 설명한다. 2부 ‘오래된 현재’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신화, 전설, 오페라, 뮤지컬 등 작품과 의학 용어의 관련성 혹은 기원을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해석한다.

어린 시절 상상력을 자극했던 명작의 주요 장면들을 어른이 된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본 점이 새롭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도 충분히 즐겁지만, 이면에 숨겨진 상황을 아는 것도 참 재미있다. 읽는 내내, ‘아! 그렇구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유수연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 후, 현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의사가 읽어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으며, ‘이만배 교양지식웹툰’에서 <올림포스 종합병원: 그리스 로마 의학 신화>의 글 작가를 맡았다.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 위에서 새로운 강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를 저어보자. 미래가 현재로 바뀌는 순간은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니까.”(172쪽)

사서의 추천 글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유튜브 <안될과학 Unrealscience>의 진행자인 케도 작가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간 우리는 과학이 필요하다. 과학안내서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26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과학의 문을 열어주는 책이다. 인공지능, 딥 러닝 같은 과학의 최신 원리는 물론 양자 역학, 표준 모형처럼 가장 현재의 과학 이론 그리고 기억, 노화, 죽음 같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학 지식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작가는 과학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며 과학 지식을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설명한다. 하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과학을 쉽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과학 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케도 작가의 안내에 따라 과학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자. 과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머릿속을 채울 것이다. 📖

저자 소개 케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유튜브 과학 채널 <안될과학>의 진행자.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천문우주학을 공부하고, 청와대 과학기술 분야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KBS 뉴스특보>에 출연해 국내 최초 대한민국 발사체 누리호 발사 생중계 해설을 했으며, iHQ <G식의 밤>, MBN <스라소니 아카데미>, JTBC <국과대표> 등 다양한 TV 및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 《케도의 과학 허세》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글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01

동서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22개의 첩으로 구성된 김정호(추정: 1804~1866)의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를 모두 연결하면 남북 6.7m, 동서 4m의 초대형 우리나라 전도가 된다. 벽면에 걸어놓으려면 건물 1층 높이로는 안 되고 최소 2층 높이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크기이기에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라면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 김정호는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대동여지도》를 그렸을까?’ 이런 의문을 저절로 떠올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전국을 세 번 답사하고 백두산을 여덟 번 오르내리며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크고 자세한 《대동여지도》를 절대로 그릴 수 없어!’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굳힌다. 뭐가 진실일까?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해동여지도》(청구기호: 古貴2107-36)를 통해 김정호의 전국답사설과 백두산등정설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02



1834년의 《청구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들은 김정호의 전국답사설과 백두산등정설이 허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릴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힘들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런 연구 성과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 등에 반영되어 정설로 굳어졌고, 온라인으로 많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중에서도 벽면에 전시한 원본 크기의 《대동여지도》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특히 더 믿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최근 부산대학교 김기혁 명예교수는 국내외에서 발견된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결본을 포함하여 총 35세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품 팔아 숫자로서 증명한 연구다. 국내에도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소장한 기관이 꽤 많으며, 몇 세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다.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누리집에서 《대동여지도》의 이미지를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검색만 하면 찾아보기가 정말 쉬워졌다. 그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누리집에서는 모두를 연결한 《대동여지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원본 크기까지 확대·축소가 가능하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1종만 제작한 사람이 아니다. 내용이 다른 《대동여지도》와 《청구도》를 각각 5번이나 제작하였고, 낱장과 소형의 책자형 목판본 지도 또한 많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23첩의 《동여도》(1857~1859)와 2책의 《청구도》(1834)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여도》는 4종이, 《청구도》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을 포함하여 17종 이상이 발견되었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는 《동여도》와 《청구도》까지 모두 연결하고 원본 크기까지 확대·축소가 가능한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모두 연결한 《동여도》의 크기는 《대동여지도》와 같고, 모두 연결한 《청구도》의 크기는 앞의 두 지도보다 약간 크거나 작다. 그런데 모두 연결한 《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도》를 함께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모습에서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는 같고, 이 두 지도와 《청구도》는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03



-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동여지도》
- 02 위부터 모두 연결한 《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도》
- 03 왼쪽부터 《청구도》, 《해동여지도》, 《팔도지도》의 경상도 창녕·양산. 기본 정보가 거의 동일하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1861년뿐만 아니라 《청구도》를 만든 1834년에도 우리나라를 ‘크고 자세하며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의심을 일거에 날려버린 지도책, 《해동여지도》

결국,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1861년뿐만 아니라 《청구도》를 만든 1834년에도 우리나라를 ‘크고 자세하며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 김정호는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대동여지도》를 그렸을까?’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가치를 상실한다. 그런데도 또 지도책만 바뀌서 이렇게 의문을 던진다.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 김정호는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청구도》를 그렸을까? 아무리 그래도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고서야 절대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지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청구도》를 그릴 수 있는 자료가 많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그래도’라는 식의 반응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지도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부를 제외하면 고을별로 나누어 그려서 수록한 3권의 《해동여지도》가 그것인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누리집에서는 모든 면의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청구도》 위의 모든 고을을 《해동여지도》 위의 모든 고을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고을의 경계선,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 지명 등 기본 정보의 측면에서 전국 모든 고을의 일치율이 99% 이상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지?’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것이다.



04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의 첫 번째 제작자, 신경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해동여지도》는 1776~1787년 사이에 처음 편찬된 것을 1800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완질본으로서 유일본이다. 2008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지도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 제작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와 《청구도》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정호 스스로 쓴 《청구도범례》와 친구 최한기가 쓴 《청구도제》에는 《청구도》를 제작할 때 주요 자료로 삼은 지도책의 여러 특징이 서술되어 있는데, 《해동여지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면 《해동여지도》는 누가 제작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제작자를 찾지 못했지만, 어떤 지도책을 참고하여 편찬 제작된 것인지는 밝혀졌다. 신경준(1712~1781)이 제작한 고을지도책 8권이다.

신경준은 1770년에 영조의 명을 받아 40책의 《동국문헌비고》 중 7책의 《여지고》와 우리나라의 초대형 전도 1장, 도별지도 8장, 고을지도책 8권을 동시에 담당하여 편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신경준이 편찬한 고을지도책 계통이 8권의 《팔도지도》(청구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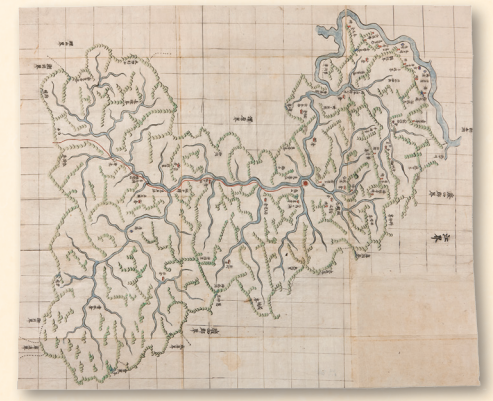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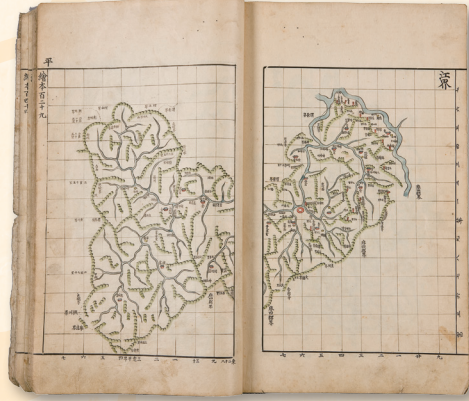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우리나라의 초대형 지도를 제작한 첫 번째 지도 제작자는 김정호가 아니라 신경준이다.

- 04 신경준이 편찬한 8권의 《팔도지도》
- 05 매우 흡사한 《해동여지도》 속 경기도 양천(좌)과 《팔도지도》 속 경기도 양천(우)
- 06 매우 흡사한 《해동여지도》 속 평안도 강계(좌)와 《팔도지도》 속 평안도 강계(우)

05



06



한貴古朝61-21)와 경상도만 수록된 《동국지도》(청구기호: 승계貴2702-22) 2종이 소장되어 있고, 모두 원문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해동여지도》의 고을 지도와 비교해 보면 고을의 경계, 산줄기와 물줄기, 지명 등에서 일치율이 99% 이상이다. 전부 비교하고 나면 이번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우리나라의 초대형 지도를 제작한 첫 번째 지도 제작자는 김정호가 아니라 신경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신경준은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자세하며 정확한 초대형의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신경준은 자신이 우리나라의 초대형 지도를 언제 어떻게 제작했는지 스스로 기록해 놓았고, 《승정원일기》에도 그 과정이 나온다. 놀라지 마시라. 신경준이 궁중의 화원들과 함께 초대형의 우리나라 전도 1장, 도별지도 8장, 고을지도책 8권을 1770년 2월에 시작하여 그해 8월에 완성하였다. 윤달이 한 번 끼어 있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8개월밖에 안 걸렸다. 이때 신경준은 《여지고》 7책의 편찬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정호와 신경준은 평생 위치 정보를 수없이 정리하고 수정하며 지도를 제작한 최고의 전문가다. 전문가의 작품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해야 예의다. 아마추어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왜곡과 전설과 신화만이 만들어진다. 모든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앱으로 확인하는 현시대에 그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



도서관에서
영어와 친해지는
습관을 키우다

영어를 다양하게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목포 영어도서관’

글 신수빈 사진 정인수, 목포 영어도서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목포 영어도서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시청 각 영어도서관 시범 조성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생활 속 학습공간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6년 5월에 개관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영어책 2만 3,200여 권과 딸림 자료 CD 5,200여 점, DVD 500여 점을 소장한 종합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내 정보검색이 가능한 미디어열람실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키즈룸과 휴식 공간인 북카페가 마련돼 있다. 2층에는 방음시설과 최신 음향 및 영상 장비를 갖춘 멀티룸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터디룸,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 영어는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더불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영어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도서관이 있다. 낯선 영어를 배우는 기쁨과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목포 영어도서관을 소개한다.

원어민 강사와 영어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어체험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장 도서의 97%가 영어원서로 다양한 영어책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영어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국으로 대출해주는 책바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 영어테마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남권 최초로 개설된 영어 특성화 도서관인 목포 영어도서관은 이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영어책을 읽고 세계문화를 접하는 도서관,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어 전문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종합자료실에서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영어학습 프로그램

목포 영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 영어테마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과 그 규모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프로그램 운영 후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의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등 매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독서강좌는 기본적인 책 읽기 강좌에서 아이들이 영어책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역할극이나 노래를 연계한 새로운 책 읽기 강좌로 업그레이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여행 강좌는 프로그램 운영 때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서로 다른 나라의 기념일이나 음식, 음악 등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일부는 어린이 대상 영어독서놀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호주, 독일 Talk파원과 같은 인문학 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목포 영어도서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시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한껏 뽐내며 기부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순 보조역할이 아닌 '주도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언니·오빠와 함께하는 영어독서놀이'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어린이에게는 다양한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영어책을 재미있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며, 더불어 시민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독서 나눔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자와 수혜자를 하나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키즈룸에서 진행되는 영어독서놀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스터디룸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아일랜드 문화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층 복도에는 세계문화와 이슈들을 소개하는 뉴스 및 포스터를 전시하고 있다

영어체험마을의 축소판, 영어체험교실

타 영어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목포 영어도서관만의 자량이 있다면 바로 '영어체험교실'이다. 영어체험교실은 2층 실내에 위치한 공항, 호텔, 식당, 마트, 소방서, 병원과 복도에 위치한 티켓부스, 박물관, 영화관, 동물원, 놀이공원 등 총 11개의 체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체험센터에는 소품들이 마련되어 있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상황별 대화를 역할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 견학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체크인하기,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병원에서 진료받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1시간 정도의 견학 시간으로 인해 한 번 방문 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3~4곳으로 한정되다 보니 1년마다 체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즐겁게 소꿉놀이하듯 영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어 어린이와 기관, 학부모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체험하러 올 정도로 입소문이 나 도서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시간

이처럼 특별한 체험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목포 영어도서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어 강사가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린이 대상으로는 영어책 읽기 준비과정인 'My First Phonics', 'Playing With Words'와 영어책 읽기 과정인 'Fun Reading', 'Read & Act', '노래로 읽는 영어책', 영어 회화학습 과정인 수준별 'Talk Talk English' 등 총 11개의 강좌가 운영되며, 성인 대상으로는 초보자를 위한 '왕초보 영어회화'와 분야별 저명인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TED Talks' 등 2개의 강좌가 운영된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3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 1회 1시간 과정으로 14주간 진행된다.

그밖에도 흥미로운 영어활동지를 비치하거나, 가볍게 읽고 감상할 수 있는 영미 시를 게시하고, 세계문화나 이슈를 소개하는 뉴스 및 포스터를 전시하는 등 시민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도서관에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영어로 하나 되는 도서관, 더불어 글로벌 인재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일조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해본다. 📖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영어를 해야 문해력을 갖추게 되어, 영어가 필수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포 영어도서관에서 수년간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매일매일 학습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어 가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프로그램 참여자
고석봉 님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영어도서관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영어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과목이라 도서관에서 영어책과 CD, DVD 등을 빌려보고 영어강좌도 들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제 영어가 싫지 않고 재밌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예요.”

영어독서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문재현 님

LIBRARY INFORMATION

목포 영어도서관

- 🕒 **이용** 종합자료실
평일,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11
- ☎ 061-285-8020





Library@
harbourfront

싱가포르 최대 쇼핑몰 속 책과 함께 머무는 공간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

글, 사진 조금주

싱가포르에서는 특이하게도 번화가 쇼핑몰 중심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쇼핑몰 안의 도서관은 쇼핑을 하다 지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중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싱가포르 최대 쇼핑몰에 위치해 있고, 케 이블카와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센토사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관 문이기도 하다. 특히 주말에도 쇼핑을 즐기고 방문할 수 있어 접근 성이 매우 뛰어나다.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싱가포르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싱가포르의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을 만 나본다.

확장 이전을 통한 물리적 공간 업그레이드

부키메라 공공도서관이 2018년 12월 1일에 문을 닫고 비 보시티(Vivo City) 쇼핑몰로 이전하여 하버프론트 공공도서 관으로 재개관한다는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시민들의 불만과 온라인 청원을 불러일으켰다. 부키메라 센트럴 쇼핑몰 3층에 위치했던 부키메라 공공도서관(Bukit Merah Public Library) 은 1982년에 개관하여, 연간 약 5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 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위치에 도서 관을 유지해달라는 청원은 이후 거의 1,000명의 동의를 얻었 다. 이전하는 도서관의 위치가 기존의 도서관 부지에서 너무 먼 데다, 주거단지로부터 3km나 떨어져 있어서 학생과 노인 들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으로 메이저 쇼핑몰로 확장 이전한 하버프론트 공공도 서관은 2019년 1월 12일에 개관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쇼핑몰 도서관이 되었다.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은 모 두 국립도서관위원회 소속으로 총 28개소인데, 그중 절반인 14곳이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쇼핑몰 도서관이다. 쇼핑몰 도 서관들은 단독 건물로 지어진 도서관보다 면적 규모가 작고, 개관 시간이 오전 11시로 다소 늦지만, 대부분 지하철역과 가 까워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 이 가능해서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01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 정면 입구
02 비보시티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이다

공간 구분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경험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약 3,000m² 규모에 약 20만 권의 책과 잡지,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다. 비보시티 쇼핑몰 3층에 자리해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다. 리조트 섬인 센토사(Sentosa)와 바다와의 근접성에서 영감을 얻은 새 도서관은 파란색과 녹색 색조의 파도가 있는 해안을 테마로 채택했다. 공간은 소음 감소 및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구역과 어린이를 위한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덕분에 어른들은 유익한 디지털 콘텐츠에 편안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증강현실 책을 통해 마음껏 놀면서 교육활동과 함께 읽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구역에는 멋진 전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독서라운지가 있다. 센토사가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멋진 해안가 전망은 마치 해변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착각이 들게 한다. 번잡한 쇼핑몰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약 20만 권이 넘는 방대한 책과 쾌적한 독서 및 학습 공간을 즐길 수 있다. 50대 이상의 이용자들은 교육용 모바일 앱과 가상현실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10대 이용자들은 보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분기별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S), 기술(T), 공학(E), 인문·예술(A), 수학(M))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 구역은 창의적 문제 해결 및 문해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그중 킥 트럭(Tinker Truck)은 어린이 구역의 하이라이트로 어린이 전용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라고 할 수 있다. 3세에서 9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종이공예 작업을 한다. '이야기가

살아나는(Stories Come Alive)' 방에서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움직이는 이미지와 조명 및 음향 효과를 사용한 스토리텔링은 어린이들에게 대화형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단어 퍼즐을 풀고 우주, 동물 및 신체 건강과 같은 주제에 대한 증강현실 책을 읽거나, 대화형 전자책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적인 독서를 경험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서 서비스의 전문화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약 48만 권의 전자책(eBook)으로 구성된 멋진 디지털 컬렉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제공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책을 검색 및 예약하고 온라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레스 리더(PressReader) 앱을 이용하면 6,000개 이상의 지역 및 국제신문과 잡지를 무료로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를 꼽자면, 바로 도서관 내에서 인쇄된 종이신문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신문들 모두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 중이며, 책상 위의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정기간행물과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자동화(Automation)와 DIY 서비스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서반납기(Bookdrop), 도서자동분류기(Auto-Sorter), 예약대출기(Reservation Lockers)를 설치하였다. 도서가 저절로 반납처리 되고, 유리창문 너머로 하얀색의 깔끔한 기기 위에서 매끄럽게 자동 분류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고 있다.



05



06

또한 도서반납기와 자동분류기의 설치에 직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도서 대출·반납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가 기계화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사서들은 '스토리텔링,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북클럽의 활성화, 콘텐츠 큐레이션, 이용 데이터 분석, 세분화된 이용자 맞춤 서비스 등'과 같은 더 높은 가치의 작업으로 업무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무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불러일으켰다.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보다 좋은 위치로 확장 이전하면서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고,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경험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의 영향력이 다른 도서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②

- 03 센토사섬이 한눈에 보이는 자료실 전망
- 04 어린이자료실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인 킥 트럭(Tinker Truck)
- 05 한 이용자가 벽의 디스플레이로 전자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 06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은 성인과 청소년 구역이고, 왼쪽이 어린이 구역이다. 바로 앞에 도서반납기(Bookdrop)가 있고, 유리창 너머로 도서자동분류기(Auto-Sorter)가 있다

【조금주】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03



04





싱가포르 하버프론트 공공도서관

📍 1 HarbourFront Walk, #03-05 VivoCity, Singapore 098585

🕒 월~일 오전 11시~오후 9시
크리스마스, 신년, 구정 전날은 오후 5시까지 운영

🌐 www.nlb.gov.sg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수족관, 워터슬라이드, 파도풀,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 8 Sentosa Gateway, Sentosa Island, Singapore 098269

🕒 금~화 오전 10시~오후 6시
(수요일, 목요일 휴무)

🌐 www.rwsentosa.com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할리우드 영화 등을 테마로 한 세트장과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 8 Sentosa Gateway, Sentosa Island, Singapore 098269

🕒 수~월 오전 11시~오후 6시
(화요일 휴무)

☎ +65-6577-8888

29

누구에게나 공평한 도서관

‘배리어프리 도서관’

글 정은주 사진 파주시 한울도서관, 서울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원래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물리적 배리어프리뿐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됐다.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 신체·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신축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BF(Barrier-Free) 의무인증 등을 통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신체·인지 능력에 따라 도서관에 접근하기 위한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도서관 현장에서는 Barrier-Free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BF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파주시 한울도서관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서울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을 탐방해보자.



BARRIER-FREE

국내 최초 BF(Barrier-Free) 인증 최우수 등급,

파주시 한울도서관

파주시 한울도서관은 국내 도서관 중 최초로 2018년 12월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BF(Barrier-Free)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또는 지역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한울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주차장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하 1층의 출입구 가까이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리고 도서관 주 출입문뿐만 아니라 남녀 장애인 화장실,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출입문 모두 터치식 자동문으로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지하 1층의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대출 및 반납 창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다리를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창구가 있으며, 종합자료실 내 장애인·노인 코너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시각장애인 또는 노인들을 위한 독서확대기가 비치돼 있다. 책상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 가능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와 특수키보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와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등도 고루 갖추어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합자료실 내 장애인자료 코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 1,300종 이상 비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면낭독실이 있어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대여용 휠체어도 비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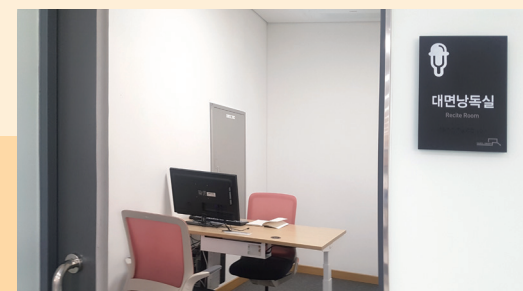
한울도서관 전경 및 주차장



한울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한울도서관은 ‘신체의 장애가 삶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 장애특화 도서관’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장애인식 개선 북컬렉션 운영,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책 책장 운영, 지역 청소년과 지역 발달장애아동 멘토/멘티 연결 독서교육 추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민참여형 릴레이 도서 낭독봉사 동아리 운영, 지역 장애학교와 연계한 현장실습처 협력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지원, 기타 장애인식 개선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의 장애인특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한울도서관 대면낭독실



한울도서관 장애인·노인 코너



한울도서관 대여용 휠체어 비치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서울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

도서관은 책 읽는 이용자들을 위해 어느 곳보다 서로에 대해 배려가 필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고유의 특성 때문에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들이 있다. 바로 경계성 지능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느린 학습자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느린 학습자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성동구는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인 '와글와글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장애 특성상 소리를 크게 내거나 과격한 행동이 뒤따르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도 편히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었다. 느린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은 서울 성동구 이 외에도 구로구와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은 2021년 12월에 개관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느린 학습자나 아동이 도서관 내에서 신발을 벗고 앉거나 누워서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온돌바닥을 깔고 일반 책상이나 의자 대신 कु주머니 모양의 소파를 곳곳에 비치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면에는 아동이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소리도서, 촉감도서, 인지도서가 배열된 3개의 작은 서가가 있으며 안쪽 벽면에는 촉각, 시각, 청각 등 다감각 발달을 위한 촉각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들을 위해 양육이나 장애와 관련된

교육도서와 일반 교양서적 등도 비치하고 있다.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흥미를 높이는 독후활동,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재밌는 동화구연, 그리고 그림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활동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느린 학습자와 유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상 모든 도서관의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희망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의하면 국내 도서관 중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장애인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별도의 장애인자료실을 갖춘 공공도서관 48개관, 별도의 장애인코너를 갖춘 공공도서관 125개관, 점자도서관 39개관, 청각장애인도서관 5개관, 특수학교도서관 94개관 등 총 311개관이다.

언뜻 보면 전국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자료를 갖춘 도서관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공공도서관 1,208개관, 작은도서관 6,448개관으로 전체 도서관과 비교하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도서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근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신체·인지 능력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꿈꿔본다. ❷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 전경과 이용 안내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MZ 세대 과학덕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2030 과학 분야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36 오늘의 만남

글과 그림으로
채워가는 단단한 일상
삽화가 임진아

44 고전 드라마

어쩌다 보니 계몽 100년 차
루쉰 《아큐정전(阿Q正傳)》

40 K-인문학

'유미의 세포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48 오감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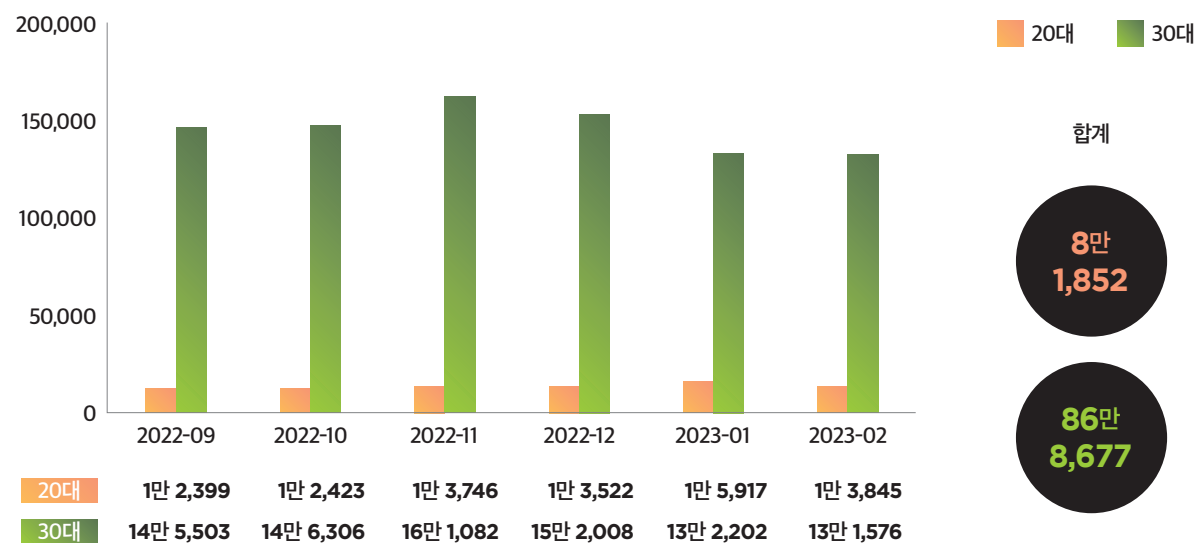
모두가 눈이 먼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다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MZ 세대 과학덕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2030 과학 분야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2030 자연과학 분야 도서 대출 분석

(단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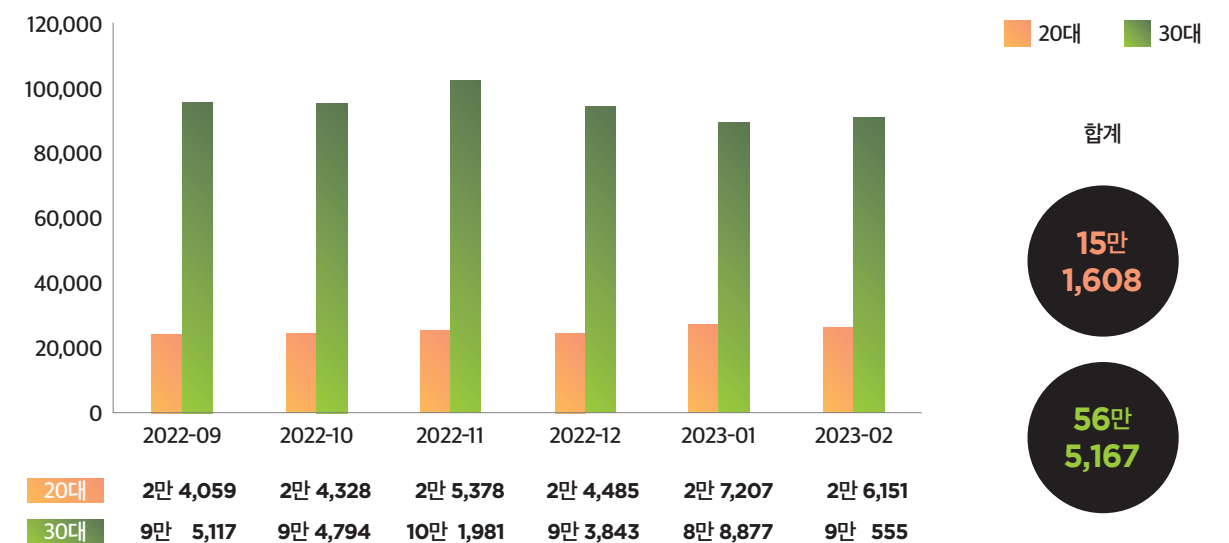


4월 과학의 달이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한 것은 1934년 4월 19일이다. 이후 사회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이처럼 뜻깊은 과학의 날을 맞아 MZ 세대가 가장 많이 읽은 과학도서는 과연 무엇일까. 자연과학 분야와 기술과학 분야로 구분한 '2030 과학 분야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를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09. 01.~2023. 02. 28.

2030 기술과학 분야 도서 대출 분석

(단위: 권)



3위 코스모스: 특별판

칼 세이건 지음 | 홍승수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06

4위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 홍영남, 이상임 옮김 | 을유문화사 | 2018

5위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심채경 지음 | 문학동네 | 2021

최근 6개월간 20대는 8만 1,852권, 30대는 86만 8,677권의 자연과학 분야 도서를 대출했다. 특이점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5060 세대에서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19세기 어느 과학자의 삶을 흥미롭게 좇아가며 사랑과 상실, 혼돈을 독특한 방식으로 들려주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위 젊은 ADHD의 슬픔

정지음 지음 | 민음사 | 2021

4위 도파민네이션: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애나 램키 지음 | 김두원 옮김 | 흐름출판 | 2022

5위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 | 김은령 옮김 | 홍익희 감수 | 에코리브르 | 2011

최근 6개월간 20대는 15만 1,608권, 30대는 56만 5,167권의 기술과학 분야 도서를 대출했다. 요즘 기술과학 분야 책 중에서 '뇌과학'을 주제로 한 책들이 MZ 세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뇌과학 분야 도서의 인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일하는 시대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나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과 심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임진아 |

읽고 그리는 삽화가. 생활하며 쓰는 에세이스트. 일상의 자잘한 순간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아직 도쿄》, 《오늘의 단어》, 《읽는 생활》 등을 쓰고 《어린이라는 세계》,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등에 삽화와 표지를 그렸다.

글과 그림으로 채워가는 단단한 일상 삽화가 임진아

진행 신수빈 사진 정인수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또 책을 꾸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임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읽는 생활》이라는 에세이집을 냈고, 2023년 일력인 <오늘을 채우는 일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만화 에세이 《오늘의 단어》, 일상 에세이 《빵 고르듯 살고 싶다》와 《사물에게 배웁니다》를 썼고요. 여행서로는 《아직, 도쿄》를 쓰기도 했습니다. 책의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나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2

어떻게 삽화가라는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나요?

삽화가가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운 적은 없지만, 어릴 적부터 ‘삽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첫 직장이 디자인 문구 회사였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 우연히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포트폴리오로 내세울 만한 작업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평소 쓰던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소 즐겨 쓰는 수첩과 다이어리 속 작은 그림들이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그 길로 문구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문구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문구는 대부분 지류가 많으니, 종이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문구류를 제작하다 보니 책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혼자서 작은 책자를 만들

자신의 모습과 꼭 빼닮은 캐릭터를 그리며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삽화가 임진아. 지난해 임진아는 읽고 그리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일상을 기록한 독서일지를 펴냈다. 책을 사 모으고 읽으면서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좋아하게 된 임진아는 본인을 ‘독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읽는 사람에서 쓰는 독자로, 부지런히 자신을 키우는 임진아의 단단한 일상을 들여다본다.

었는데, 저의 작품을 좋게 봐주신 출판업계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문구에 그렸던 그림들을 조금씩 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03

삽화가 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임진아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많아요. 보통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말은 워낙 방대해져서, 제 작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야기나 글이 있는 자리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삽화가라는 말이 더 어울려서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면 “읽고 그리는 삽화가, 생활하며 쓰는 에세이스트입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있어요. 일러스트 중에서도 글 곁에 자리하는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고 또 그 일을 이어가고 싶어서 삽화가라는 수식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04

일상의 자잘한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림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 편인가요?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나가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매일 신경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재미있던 대화나 이유 없이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것들 혹은 수첩 끝에 끄적거리던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선명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 일상을 살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일상을 만들고, 저를 스스로 좋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혼자라는 감각이 저에겐 여전히 참 중요합니다.

05

작가님의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과정도 궁금해요.

저이기도 하고,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캐릭터가 대부분 머리가 짧아요.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제 머리가 아주 짧아서 그렇게 그렸는데, 누군가가 보기에도 자신처럼 친숙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남자 캐릭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모습을 투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와 제가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저를 똑같이 그리려고 한 적은 없지만, 행사장이나 사회회에서 만난 분들이 모두 그림이 저와 닮았다고 말씀해주세요. 들을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아요.

06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둘 중 작가님의 성향과 잘 맞는 것을 고른다면요?

둘 다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럴 때 맛있고, 저건 저럴 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둘 다 다르지만, 저랑 잘 맞는 지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림은 말수가 없는 것처럼 말없이도 분위기로 더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에 좋고, 글은 말을 하지 않은 만큼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림은 짧은 문장이나

글로 먼저 정리한 후에 그리는 편이에요. 사소하고 담백해 보여도 제 안에서는 분명한 언어로 정리된 것들을 그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둘의 시작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

삽화 작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작품 혹은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님이셔서 책을 맡을 때 무척 기뻐요. 책이 많은 분들께 닿아서 리커버 작업을 두 번이나 하게 됐거든요. 제 그림이 많이 알려졌던 계기가 됐어요. 또 저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도 하고 되도록 자랑 잘 맞는 작업을 골라서 신중하게 작업하는 편이라 작업을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린이라는 세계》가 나왔을 때는 그 책 한 권만 작업했어요. 그 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작업 제안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같은 해에 비슷한 그림이 서점에 많이 깔리면 책의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 거절했어요. 《어린이라는 세계》가 제 고유한 그림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제 그림 화풍은 제가 그린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린이라는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업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08

작가님의 그림과 글을 좋아하고 찾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님의 그림과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또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누구나 마음이 낮아지는 상황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분들, 내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제 작업물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먹는 빵과 커피 사진을 SNS에 올리면 보기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세요. 저는 책에 대한 후기도 자주 올리는데, 제 일상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단히 애쓰는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비슷한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아마 제 글과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내 일상을 지키는 마음’과 ‘사소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독자분들한테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09

신간 《읽는 생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읽는 생활》은 읽고 그리고 쓰는 사람이 기록한 독서 일지입니다. 책 속에서 저는 저를 ‘쓰는 독자’라고 표현했어요. 글을 읽고 쓰는 게 일이기도 하고 책을 만드는 게 직업이라 책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 책을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아무리 책을 만들고 책을 쓰는 일을 하지만 저는 가장 독자에 가까운 사람임은 변하지 않을 거라서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들과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독서록을 한 권에 담고 싶었습니다.

10

지금까지 출간한 책과 달리 ‘책’을 소재로 다룬 책을 내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또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책이나 책방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 도쿄에 있는 책방에서 책을 주제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신 편집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좋아하게 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책을 사 모으고 읽으면서 저는 저를 점점 더 많이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많은 주제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관심사가 뭔지, 내가 요즘 집중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할 때마다 책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 흐름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읽고 쓰는 일로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이 담백하잖아요.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읽고 나서 읽는 생활의 의미를 스스로 갖게 되었다는 후기가 가장 좋았어요. 또 자신의 독서 일기를 만들어보고 싶어 블로그를 개설했다는 후기를 읽었는데, 차근차근 후기를 쌓아보고 싶어 독서 일기를 시작했다는 글이 저한테 힘이 돼서 쓰는 독자가 계속 늘어나길 상상해요.

11

애서가로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그 책을 고르신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추천사를 쓴 책인 쓰지아마 요시오 작가님의 《작은 목소리, 빛나는 책장》입니다. 작가님이 운영하는 도쿄의 작은 책방 ‘타이틀(Title)’은 《읽는 생활》과 《아직, 도쿄》에 소개하기도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서점을 열면서 다른 책을 마주하며 몽근한 일지를 쌓아가는 책방 주인의 일상을



임진아가 삽화와 표지를 그린 책들

들여다보면, 책과 책방들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한 권은 문학 편집자인 박혜진 작가님의 《이제 그것을 보았어》입니다. 이 책은 문학 작품의 엔딩 장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책 일지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이 그려집니다. 문학을 읽고 싶은데, 어떤 문학을 먼저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책이 이어지는 책을 좋아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이 궁금해져서 바로 다음 독서가 이어질 거예요.

12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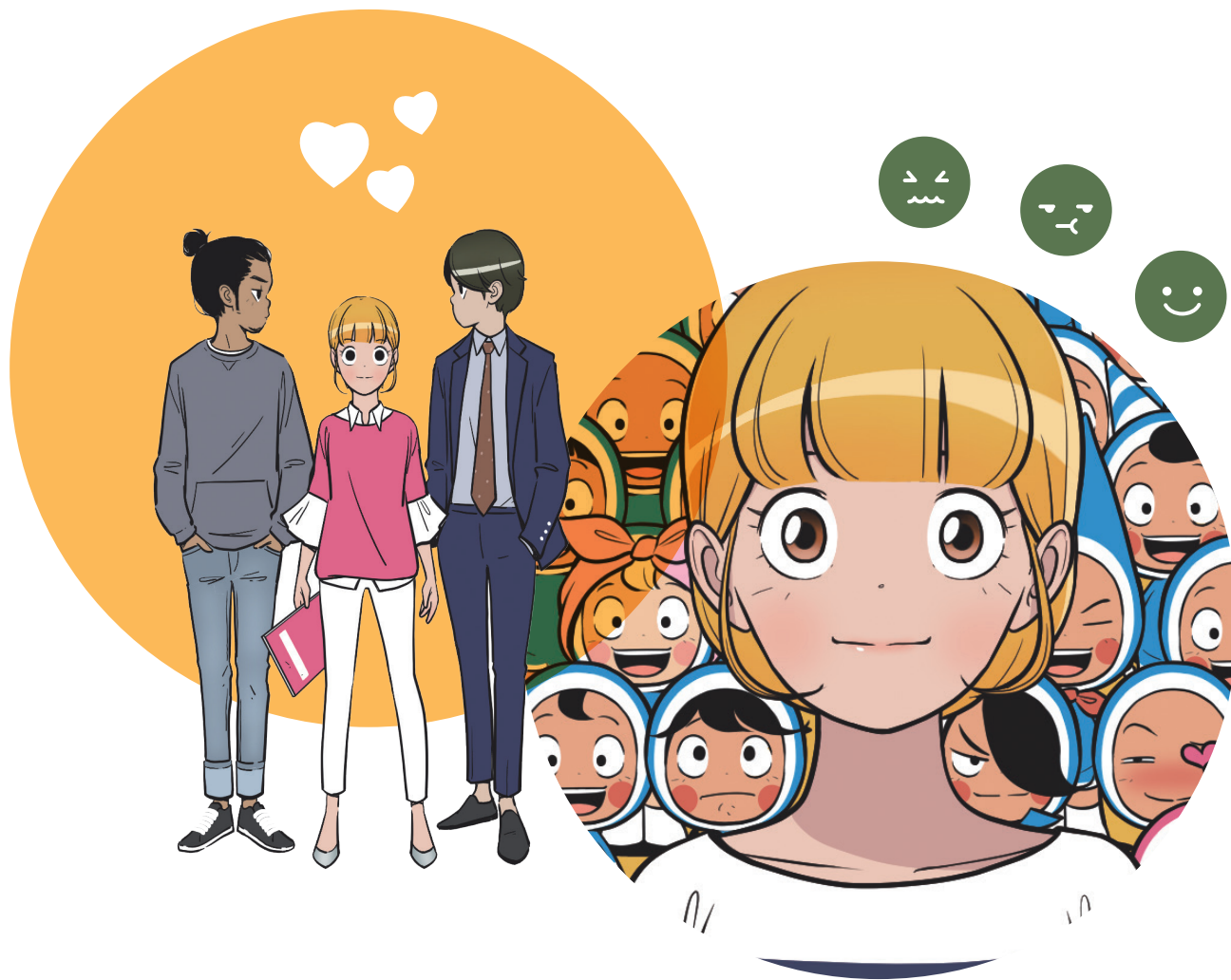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책 《아주 오래된 서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진보하든, 종이도 책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에서 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유의 영역에 책이란 물건이 계속 존재하길 바라면서, 책의 세상이 우거진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나가고 싶고요. 계속 책으로 이야기하면서 책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패드로 그림 작업을 하는 임진아

삽화가 임진아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글 정덕현 사진 네이버웹툰, 이동건, 유미의 세포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시인과 촌장은 1988년 3집 앨범 <숲>에 들어있는 ‘가시나무’라는 곡에서 자신의 심경을 그런 가사로 풀어낸 바 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자신 속의 ‘헛된 바람’과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 같은 ‘가시들’ 때문에 어린 새 같은 당신이 실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 속에는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 또 욕망들이 소용돌이치며 부대끼고 울어대고 있고 그것은 그가 마주하는 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타인 역시 이러한 영향을 통해 그 자신 속에 무수한 감정과 생각과 욕망의 파도를 겪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니 말이다.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전부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다양한 감정, 생각, 욕망의 결과로 바라본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질책하기보다는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애쓴다. 마치 한 가지 모습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내면의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 욕망들이 다양한 그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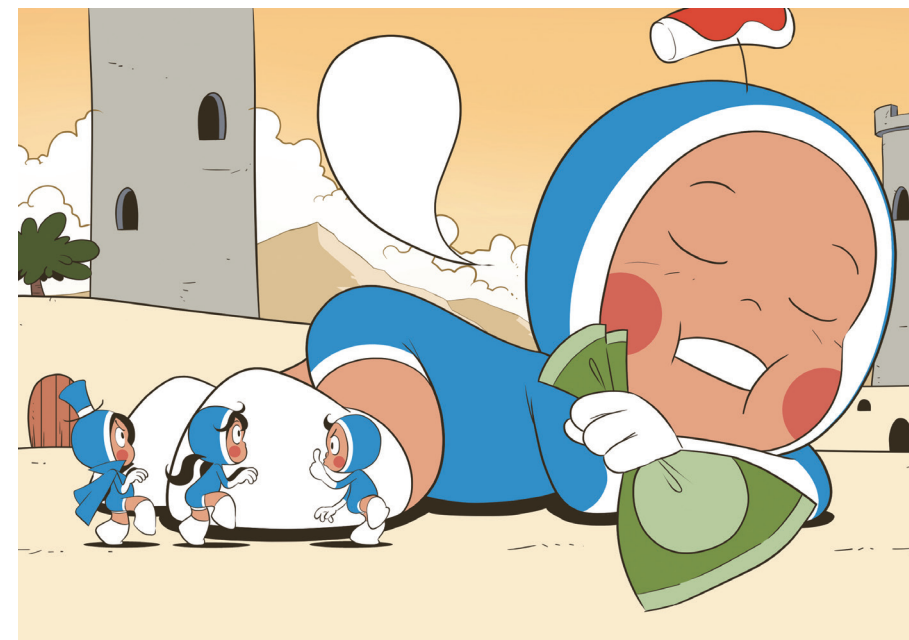
{ <유미의 세포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 }

이동건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남녀가 만나 설렘을 느끼고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치유받기도 하는 그 전형적인 사랑과 이별의 과정들을 담은 멜로드라마다. 유미(김고은)와 구웅(안보현)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과정이 시즌 1이었다면, 시즌 2는 새로 나타난 바비(박진영)와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를 담은 멜로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이 드라마는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른바 ‘세포마을’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이 평이한 연애담을 거의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이야기로 재해석해낸다.

세포마을에는 사랑할 때 생기를 갖는 사랑 세포는 물론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유미를 붙잡아주는 이성 세포, 또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출출 세포,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응큼이 세포, 추리 본능을 드러내는 탐정 세포 같은 다양한 세포들이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유미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이 세포들은 엄청난 사태들을 경험하고 또 서로의 견대립을 보이면서 유미로 하여금 어떤 말과 행동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유미가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졌을 때 그 슬픔은 세포마을을 홍수로 쓸어버린다. 하지만 유미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설레는 감정을 갖게 되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깨어나지 못했던 사랑 세포가 눈을 뜬다. 즉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포들의 이야기’로 형상화한 것이 <유미의 세포들>이다.

공교롭게도 <유미의 세포들> 원작 웹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역시 내면의 감정 캐릭터들이 겪는 모험담을 그린 바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11살 소녀 라일리의 ‘감정 콘트롤 본부’에서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다섯 감정 캐릭터가 벌이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감정에 커다란 파고를 만들고, 또 내 안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다.



다양한 세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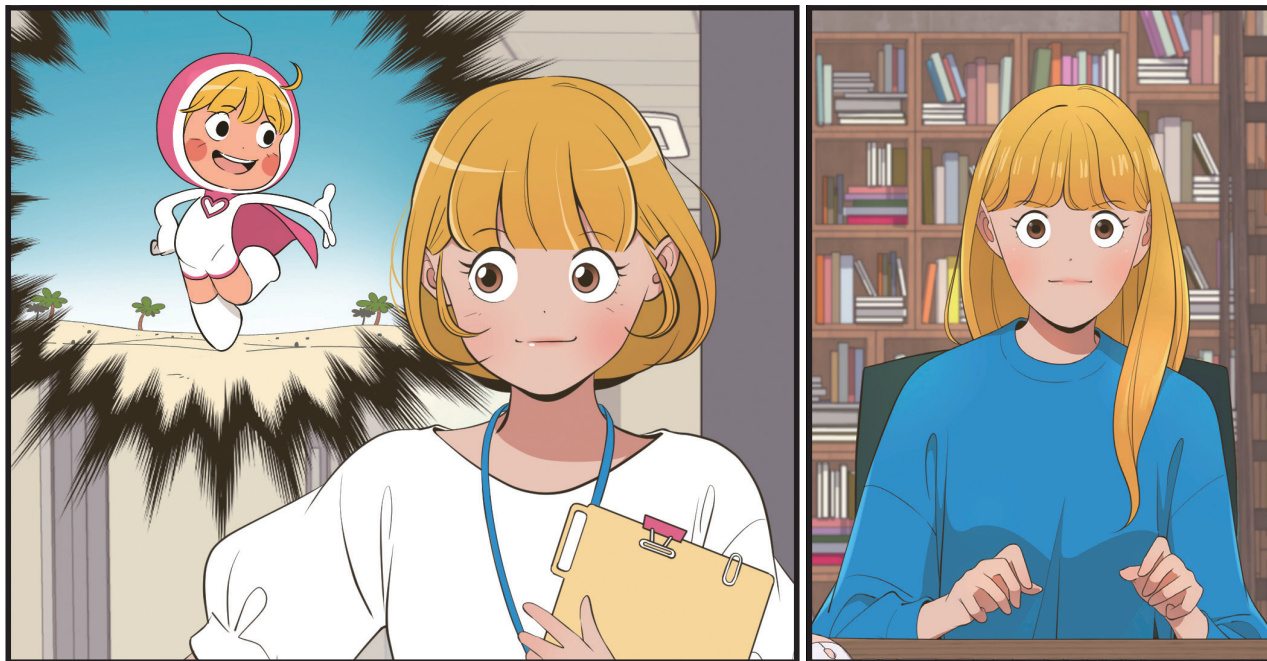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른바 ‘세포마을’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이 평이한 연애담을
거의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이야기로 재해석해낸다.

{ 다양한 감정이 만드는 다양한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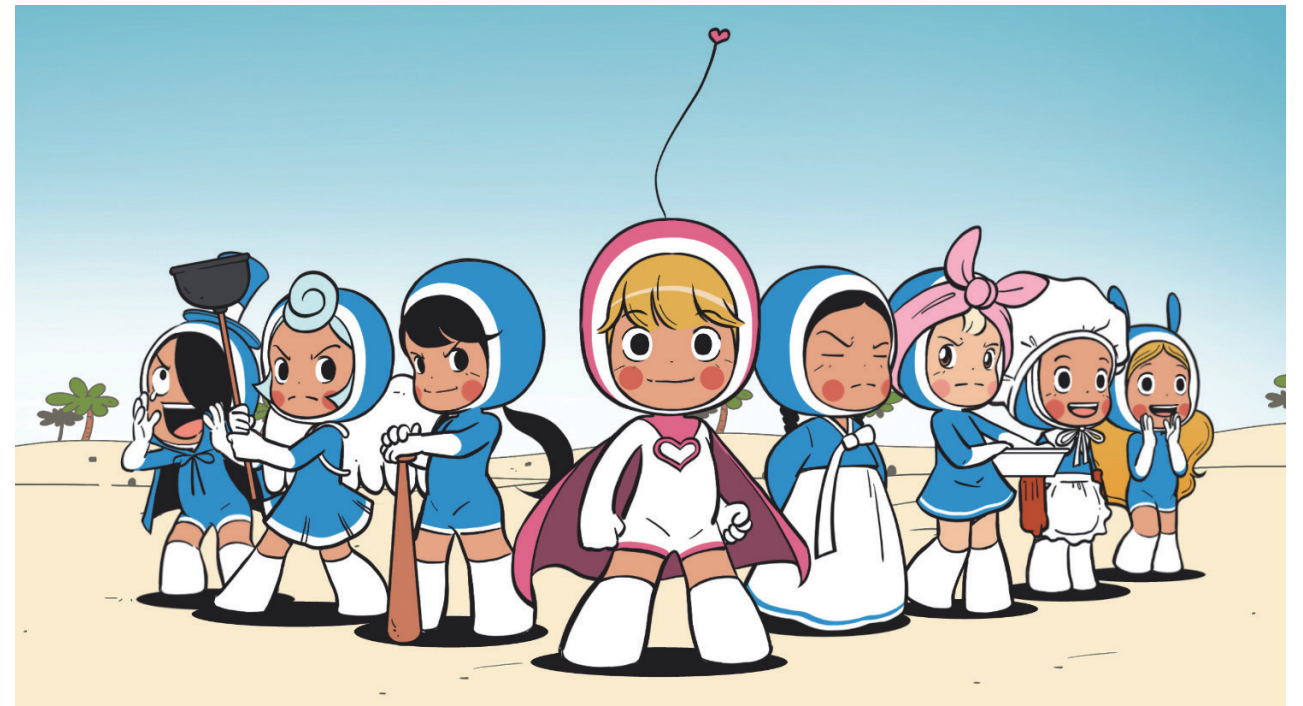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걸 이처럼 ‘인격화’해 보여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는 휴머니즘의 중요한 성격이 아닐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거나 심지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조차 애써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 관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복잡해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방송가에 ‘오은영 신드롬’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은영 박사의 심리상담은, 육아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걸로 드러난 양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끄집어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러니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꺾꺾 눌러뒀던 감정을 뽐겨주는 따뜻한 상담에 위로받는다.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조차도.

원인이 되는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는 휴머니즘의 중요한 성격이 아닐 수 없다.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주인공 유미



유미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다양한 세포들

{ 다양한 나와 다양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

다양한 감정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유미의 세포들>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은 ‘다양한 나’에 대한 인정이다. 과거 개발 시대의 우리 사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나에 대한 강요는 ‘다른 나’를 부정하고 그 안에 많은 다른 감정들을 억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미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세포들이 서로 부딪쳐 때론 이성적이지만 때론 감정적이고 때론 소심하지만 때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유미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걸 떠올려 보라. 결국 나를 만드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의 선택이고 그것은 또 다양한 감정들이 부딪쳐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다양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일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양한 나’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나’에 대한 인정은, ‘다양한 타인’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복잡다단한 사회일수록 하나의 나로서 적응해 살아가는

일은 어렵다. 더 다양한 내가 필요하고,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가능성을 여는 일이기도 하다.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달리 읽어야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해 타인이 설 곳이 없다는 걸 그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누구나의 감정이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 가시조차 보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긍정하는 것으로 ❷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어쩌다 보니 계몽 100년 차 루쉰 《아큐정전(阿Q正傳)》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혹시 '아큐 정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 중국어로 아큐 정신은 '누구나 현실에 맞서지 않고, 대신 자신이 스스로 성공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아큐는 그 당시 중국인의 특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은유적인 상징이죠. 아큐는 중국의 소설가 루쉰(魯迅, 1881~1936)이 1921년 12월에 발표한 《아큐정전(阿Q正傳)》(이하 아큐정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중국 현대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루쉰은 사상가, 혁명가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그가 쓴 《아큐정전》은 중국 현대문학사상 불후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 아큐의 모습은 과연 백여 년 전의 중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어리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아큐의 모습은 부정적인 자기만족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모습과 겹쳐지며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큐’의 모습이 아닌지, 혹은 아큐가 살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1

저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가진 것도, 특별한 능력도 없지요.



#2

그저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3

비록 싸움에서 저도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저는 무조건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4

어느 날, 지나가던 비구니를
놀리려고 불을 꼬집었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짜오 영감네 하녀에게 고백했다가
얻어맞고 일까지 끊기게 되었어요.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한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만

- 인물관계도 -

아큐 **주인공**

성명도 본적도 불확실한 날품팔이꾼.
집 없이 사당의 한구석에서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으며, 아큐 또한 그들을 경멸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그는 항상
'정신승리법'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짜오 영감

마을에서 높은 관리급의
인물 중 하나이자 마을의
지주. 상당한 재력을 갖춘
데다 관리등용시험에
급제한 아들 덕에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우마

짜오 영감 댁에서
일하는 하나뿐인 하녀.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치근덕거리는
아큐에게 혼찌검을
낸다.

마을 사람들

평소 아큐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다
짜오 영감의 집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 아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작품읽기 준비 운동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정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

중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20세기를 맞이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 운동' 등 온갖 시련을 겪던 '청나라(淸朝, 1616~1912)'가 1912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무너지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인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세워지는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혼란 속에 놓인 국가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연달아 패배까지 하는 내외위환(內憂外患)의 상황임에도 변함없이 "중국은 큰 나라(大國)"라며 우쭐거렸고, 중화제국(中華帝國) 시절부터 이어져 온 피지배자로서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이 중국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니,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정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라는 그의 계몽(啓蒙) 메시지를 담은 여러 편의 글 중 한 편이 바로, 《아큐정전》입니다.

줄거리 알아보기 **강약약강(強弱弱強)**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阿Q)'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작가가 당시 중국인들의 모습을 비꼬아 탄생시킨 인물로, 친근한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는 '아(阿)'와 청나라 사람들의 머리 모양인 변발과 닮은 알파벳 'Q'를 합친 '아큐(阿Q)'라는 단어가 이름처럼 불릴 뿐입니다. 아큐는 출신지나 그간의 행적에 관한 정보도 없고, 가진 것도,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마을 사당 구석에 살며 남의 허드렛일이나 하는 무식하고 노예근성 강한 날품팔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큐는 과할 정도로 자존심을 앞세워 늘 '이기는



루쉰(1881~1936)

삶'을 살아갑니다. 싸움에서 지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해도 '무조건'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는 것이죠. 불량배에게 실컷 얻어맞고도 "내가 얼굴로 그놈의 주먹을 때렸다!"라며 우쭐거리는 것이 아큐의 생각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신승리법(精神勝利法, Spiritual Victory)'이라 부릅니다. 언뜻 보면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합리화로만 똥똥 뭉쳐 자신보다 강한 이에게는 굽신거리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에게는 아비하게 행동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는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데다 자식까지 번듯하게 잘 키워내 마을 사람들이 떠받드는 인물인 '짜오 영감'조차도 아큐에게는 '그저 별것 아닌 사람'일 뿐이고, 서양식 학교에서 교육받고 변발마저 잘라버린 세도가의 자제 또한 '양놈'이라 욕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물론 그 소리가 본인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실컷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아큐는 그럼에도 자신이 이겼다고 우쭐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비구니의 불을 꼬집으며 장난을 치던 아큐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떨쳐지지 않는 이상한 감정, 바로 이성애 눈을 뜬 것이죠. 아큐는 그길로 여자를 구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짜오 영감'의 하녀 '우마'를 만나 다짜고짜 같이 살자고 요구했고,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여성을 희롱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날품팔이까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큐는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정신승리법'이 있었기에 반성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큐는 번듯한 옷을 입고, 상당한 양의 재물을 들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더불어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와 여자들의 관심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

은 돌아온 아큐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잘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큐가 가져온 재물이 모두 도둑질로 마련한 것임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즈음 중국에서 일어나던 혁명의 물결이 마을에 도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혁명당', '혁명당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쳐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큐는 혁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면서 자신도 '혁명당원'이라 자처하고는 마을 여기저기를 들쭉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민심은 가라앉았고 아큐의 '혁명당원' 놀이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짜오 영감'의 집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아큐'를 범인으로 지목해버립니다.

결국 체포된 아큐는 자신이 왜 끌려가야 하는지, 누가 누명을 씌운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종이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서 명했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아큐는 자신이 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다 보면 목이 잘릴 수도 있지!"라는 정신승리와 함께 총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형장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아큐의 처형을 지켜보다가 "총살은 재미가 없어."라는 냉소를 보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

중국 근대기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루쉰의 대표작 《아큐정전》에는 출간 당시 중국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이 풍자되어 있습니다. 작가 루쉰은 글을 통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정의나 원칙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하고 노예근성에 젖어 있는' 중국인들의 계몽에 앞장선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정신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몽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권력,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정과 합리만이 '정신승리법'과 결합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년 차 계몽소설' 《아큐정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모두가 눈이 먼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다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글 신수빈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한다. 두 눈을 가졌기에 누릴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백색으로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면? 모두가 눈이 멀었지만 혼자 볼 수 있는 소설 속 주인공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본다.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지음 | 정영목 옮김 |
해냄 | 2022



눈을 뜬 채로 우유에 빠진 것처럼

어느 날, 한 도시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뿌옇게 되는 ‘실명’ 전염병이 퍼진다. 첫 번째 감염자는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안과를 찾지만 의사 역시 별다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한다. “오늘 병원에 이상한 환자가 왔었어.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 게 아니라 눈을 뜬 채로 우유에 빠진 것처럼, 진하고 균일한 백색이 보인다고 하더군.” 그리고 다음 날, 의사 또한 실명된다. 백색 실명은 무섭게 전염되어 퍼져나갔고, 정부에 의해 감염자들은 전부 낡은 정신병원에 격리되고 만다. 그중 눈이 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감염자들 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의사 아내다.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 물었다,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놨는지 짐작이 가요.
아니. 그녀가, 정신병원이에요, 하고 말하려 했으나,
의사가 먼저 말했다. 당신은 눈이 멀지 않았잖아,
당신을 여기 있게 할 수는 없어.
그래요, 맞아요, 나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을 집에 보내라고 할 거야,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거야.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중략)
하지만 당신은 보이잖아.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며칠 내로 나도 눈이 멀 게 분명해요,
당장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 《눈먼 자들의 도시》 중에서 -



감염자들 틈에 끼여 금방이라도 눈이 멀 것 같았지만, 의사 아내의 두 눈은 여전히 멀쩡하다. 이윽고 다른 눈먼 감염자들도 병동에 도착한다. 맨 먼저 차를 운전하던 도중 감염된 남자, 그 차를 훔쳐 달아나다 감염된 남자,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엄마를 잃은 사팔뜨기 소년. 모두 연신 눈알을 좌우로 굴러댔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식량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사살을 당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유일하게 두 눈이 보이는 의사의 아내만이 주어진 암울한 현실을 직시한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눈이 먼 것처럼 위장했던 그녀는 자신 역시 눈이 멀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용소에 맨 처음 들어갔던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몰래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새 감염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과연 이 병의 치료 약이 발견되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

병동의 모든 침대가 꽉 차고, 바닥에 자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무려 240명이 모여 살게 되었다. 배설물이 넘쳐흘러 더러워진 벽과 복도, 괴로움에 흐느끼는 울음소리,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곳곳에는 퀴퀴한 악취가 진동한다. 차라리 지옥이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 더는 참지 못한 의사의 아내는 자신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히려 했으나, 남편이 뜯어말린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중을 들어야 할지도, 온갖 시기심이 모여 이방인으로 몰린 채 쫓겨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눈먼 사람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평소 습관대로 매에 하고 울면서,
그래, 약간 혼잡하긴 하지만
그것이 늘 살아온 방식이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친밀하게 꼭 붙어서,
서로 숨결과 냄새를 섞으며
차분하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울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또는 격분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효과는 없지만
무시무시한 헐박을 하기도 한다,
너희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눈알을 뽑아버릴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란 아마 군인들일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중에서 -

한편 의약품과 음식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각 병동에선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한 병동에서 식량을 빼돌린 눈먼 깡패들이 나타나, 돈을 내지 않으면 식량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불특정한 다수가 모이면 그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가진 돈과 귀중품을 바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

경에 이르자, 눈먼 깡패들은 기다렸다는 듯 여자들을 요구한다. 이미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은 의사의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겹겹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며 병동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볼 수 없다는 건 오감의 상실 가운데 치명적인 상실로 다가온다. 시각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만이 남은 쓸쓸한 도시. 주인공인 의사의 아내를 제외하곤 이타심을 가진 인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실명'이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광기가 서린 세상에서 미치지 않은 건 그녀뿐이다. 그런데 모두가 미쳐버린 세상에서 미치지 않았다는 건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타인과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다. ❷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눈먼 자들의 도시》중에서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세 번째 필사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59 오늘의 사진관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

국립중앙도서관 NEWS

01

국립중앙도서관故이어령 1주기 추모전시, 전시 관람 감사이벤트 진행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23일(목)부터 4월 13일(목)까지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이어령의 서(序)」 전시 관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4월 12일(수)은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관람객 대상 선착순 30명에게 이어령 전 장관의 저서도 증정한다.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은 시대의 지성이자 석학이었으며,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그 큰 뜻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영인문화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전시실에서 4월 23일(일)까지 열린다. 2월 25일(토) 전시 개막 이후 2주간 2천여 명이 관람했으며, 이는 도서관 전시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어령 전 장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시 관람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 4월 13일(목)까지 전시를 관람하고 본인 SNS에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월 12일(수)은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서관의 날’을 축하하며 전시 관람객 대상 선착순 30명에게 영인문화관 강인숙 관장(이어령 전 장관 부인)의 친필사인이 담긴 이어령 전 장관의 저서를 증정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3시,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에 도슨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중고생의 단체 방문도 환영한다(사전 예약 불필요). 전시실 출입구 한쪽에는 이어령 전 장관의 저서 100여 종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이 밖에 도서관 누리집 디지털컬렉션 「우리 시대의 거인 이어령」²⁾에 접속하면, 또 다른 형태로 이어령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62

1) 3월 21일(화)까지 누적 관람객: 2,708명(일평균 118명)
2)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디지털컬렉션 > 주제별컬렉션 > 우리시대의 거인 이어령



02

2023년 제1회 저자와의 만남 개최,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작가 강연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제1회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디에간-사르-엘리만 수수께끼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도서관 콘서트 및 저자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강연에 초빙된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작가는 그의 장편소설 《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으로 2021년 공쿠르상을 받았다. 프랑스 공쿠르상은 노벨 문학상, 영국 부커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1990년생인 음부가르 사르 작가는 1976년 이후 공쿠르상 최연소 수상 작가이자 첫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 수상자다. 1921년 이후 백 년 만의 흑인 수상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20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인원을 모집했으며,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작가의 저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했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582

03

국립중앙도서관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IT)다’ 2기 모집 안내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는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IT)다’ 2기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장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에 관심 있는 청년(만 19세~34세), PC나 노트북을 활용한 영상 편집 및 활용이 가능한 청년, 오프라인 행사 참석 및 교육 지원이 가능한 청년으로 선발형으로 총 15명을 모집한다.

주요 활동은 ▲효과적인 봉사단 활동 수행을 위한 1일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5월 3일(수)) ▲「중장년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1·2기 수강생의 교육 중 디지털 도구 활용 지원(총 20차시/60시간) ▲중장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교육 서비스 개선 의견 제안(1회/서면 제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5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활동 기간을 무사히 수료한 ‘잇(IT)다’ 2기 청년에게는 봉사단 활동 수료증 및 자원봉사확인서 발급(역량 강화 워크숍 이수 및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참여자), 우수 활동자 2명 대상 상품 증정과 참여 봉사단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4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참가신청서(forms.gle/WhW67o96X1tS2auv8) 내 지원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4월 21일(금)이며 도서관 누리집(www.nl.go.kr)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47

국립중앙도서관 NEWS

0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나루 ‘데이터 구독서비스’ 신규 오픈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가 지난 3월부터 ‘데이터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구독서비스는 도서관 정보나루(<https://data4library.kr>)에서 분석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별 장서/대출데이터(매월), ▲이달의 키워드(매월), ▲최신 테마 데이터(분기별)들이 갱신될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다. 도서관 정보나루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구독서비스 이용 방법은 ❶도서관 정보나루에 접속한 뒤 ❷구독하고 싶은 데이터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 구독서비스’ 메뉴에서 ❸‘구독신청’을 하면 된다. 구독신청을 한 회원은 신규 데이터의 갱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최신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신규 데이터들의 갱신여부를 알림 기능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데이터 구독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정보나루’의 데이터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구독이 일상인 시대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구독형 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림책 오디오북 제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독서문화진흥사업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림책 10종을 선정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 읽어주세요’ 브랜드 전국 확산을 위해 오디오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림책 작가 및 출판사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녹음을 진행하였고, 오디오북 10종 중 3종은 그림책 작가가 직접 낭독하여 그 의미가 크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을 쓰고 그린 작가의 목소리와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제작된 오디오북을 듣고 아이들의 생각주머니가 더욱 커지고 책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오디오북 10종 13편은 오디오북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클럽’, ‘밀리의 서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책 읽어주세요’ 사업 안내 및 오디오북 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년 제1회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3월 8일(수), 올해 첫 번째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문해력 증진의 씨앗을 독서를 통해 키운다’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독서지도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첫 강연을 맡은 신중호 교수는 ‘독서가 문해력 및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힘인 문해력이며, 깊이 있는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스마트폰 기기와 함께 성장한 알파 세대의 문해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알파 세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독서활동 등 건강한 문해력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평소 부모들이 궁금했던 독서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7

07

지식의 공간 도서관에서 만나는 지식의 정원 전시 개최



국립세종도서관은 2023년 두 번째 기획전시 ‘지식의 정원’을 3월 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미술협회 세종지회 작가들의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50여 점으로

구성하였다.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식의 공간 국립세종도서관 전시실에서 정원의 향기를 미술품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세종시립도서관으로 순회 전시하여 예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석 관장은 “예술가들이 바라본 자연의 힘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이 위로와 에너지를 얻고, 일상 곳곳에서 정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되고 보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205



국내 도서관

NEWS

01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어영상자료관 앱 서비스 발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수어영상자료관 앱을 전면 개편하였다. 수어영상자료관 앱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구연가 검색, 재생 속도 조절, 책갈피 기능, 재생 중 자막 크기 및 위치 변경 등이 있으며,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간소화해 편리한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 분야를 한국수어영상도서(총 7,163건)로 만나 볼 수 있다. 앱 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 회원가입 후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수어영상도서 소장을 희망하는 기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문의(02-4383-8869)하면 된다.

03

서울도서관, 해설사 함께하는 역사인문기행 운영



서울도서관은 서울 도심 속 역사인문기행 '서울의 옛 도서관 길을 걷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산 도서관 길'은 4월 21일에 개최되며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총 4회로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3월 '북촌 도서관 길', 4월 '남산 도서관 길'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9월 '서촌 도서관 길', 10월 '대학로 도서관 길'을 운영한다. 자세한 신청모집은 서울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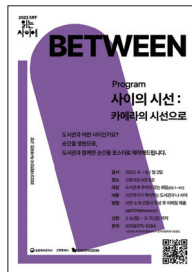
02

경남 함안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신축 개관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에서 함안도서관 신축 개관식을 진행했다. 함안도서관 신축 개관은 지난 2021년 8월 착공한 이후 약 18개월이 걸렸다. 총사업비 93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4,300m², 건축면적 2,464m²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은 아라누리(어린이자료실), 무진(공방), 흥련(휴게실), 2층은 가야누리(종합자료실), 말이(휴게실), 디지털존, 공존(예코존), 코믹스(웹툰·만화책 보는 곳), 함초롬(동아리방)을 구축했다. 3층은 셋별(자유학습실), 함추출(시청각실), 통합방(강의실), 다함방(강의실) 등으로 구성했다.

04

고양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념 시민 참여 프로그램 'BETWEEN' 운영



고양시 'BETWEEN'은 시민이 저마다의 추억과 인연이 있는 도서관의 홍보 모델이 되어보는 행사다. 시민이 도서관에 얹힌 추억과 사연을 제출하면 사진작가가 시민을 모델로 도서관 화보를 촬영한다.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시 촬영팀을 모집했고,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차시 촬영팀을 모집한다. 촬영된 화보는 포스터로 제작돼 9월 1~3일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누리집(korearf.kpipa.or.kr)을 참고하거나 독서대전 TF(031-8075-9284)로 문의하면 된다.

국외 도서관

NEWS

01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보존 관련 저작권과 국가 간 문제 관련 보고서 공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저작권 및 법률 문제 자문위원회가 《보존 관련 저작권 및 국가 간 문제: 경험적 증거》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도서관과 문화 기관이 자료를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중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저작권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법률로 인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강조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와 도서관 전문가 인터뷰, 뉴스 기사집 등을 제공한다. 사례 연구는 미국 연방 정부의 원조를 받는 아루바대학교(University of Aruba) 도서관과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납본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03

미국의회도서관, 2023~2027 디지털화 전략 발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이 '도서관 디지털화 전략: 2023~2027'을 발표했다. LC는 지난 30년 동안 장서의 디지털화를 비약적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LC는 대통령 문서의 디지털화를 마쳤다. 현재까지 LC는 장서 중 900만 건 이상의 항목을 디지털화했으며 특히 신문, 필사본 및 그림 자료 부분에 강점이 있다. LC는 향후 5년간 장서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확대, 최적화, 집중화하여 이용자들이 희귀하고 고유한 소장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는 권리가 제한된 장서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 방법으로 이용된다.

02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3년 '올해의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상' 접수 시작

'올해의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상'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과 창의적인 IT 솔루션을 가장 잘 결합하고 디지털 개발과 지역 문화를 모두 고려한 전 세계의 새로운 도서관에 수여된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축되거나 이전에 도서관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이 상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서 열리는 제88회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상금 5,000달러와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이 상은 2023년 2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누리집(www.ifla.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04

독일국립도서관, 독일어 트위터 아카이브 계획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이 트위터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게재된 40억 건의 독일어 트윗을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계정당, 최대 1,000만 건의 트윗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400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400개의 계정으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1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DNB는 누리집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독일어 트윗 다운로드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독일문헌과학데이터센터와 함께 시작한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twarchiv@dnb.de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내 마음의 문장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고양이의 신체 부위를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가 있습니다.
화자가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하는
봄의 여러 가지 느낌에 주목해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4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입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전문 -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도서관의 날이 있는 달에는
자주 가는 도서관과
읽고 싶은 책을 떠올려 보세요.
도서관 축제를 마음껏 즐기며
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3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은 (호기심 창고)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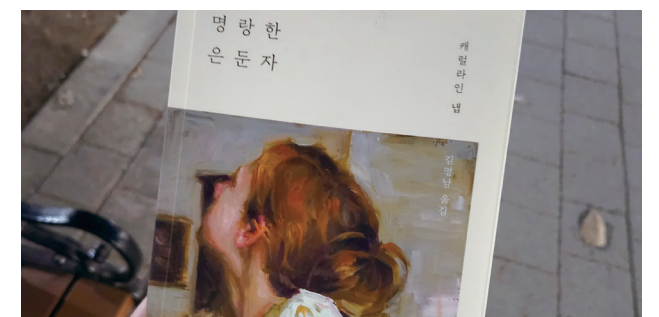


요즘 뒤늦게 MBTI에 관심이 생겨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가들이 자신의 MBTI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써서 묶어낸 앤솔로지 소설집인데요. 저랑 같은 MBTI인 작가의 작품을 읽으니 너무 공감이 가서 “맞아, 맞아”를 연발하게 되고, 정반대 성향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으면 호기심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문○라 님

02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은 (위로) 이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입니다. 힘이 들 때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책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 중 힘이 들 때마다 이 책으로 마음을 달래 왔습니다. 졸업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되었고, 다가오는 봄처럼 따스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도서관이라면 나만의 도서관에서 이 책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서 님

도서관의 날, 나만의 도서관은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